

한국어 동사 ‘깎다’의 다의성과 다의망

이 의 종*

I. 서론

지난 세기의 인지과학과 언어학은 인간 언어의 어휘항목 상당수가 다의적(polysemous)이며, 그 다의어의 의항(意項, sense)들이 언어 화자의 심성공간(mental space) 속에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고 인접한 의미끼리 연결되어 그물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Brugman and Lakoff 1988, Croft 1998). 이러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단어의 여러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서 단어의 의항들이 이루고 있는 다의망(polysemy network)을 구축하는 것이 어휘 연구의 새로운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그러한 연구의 한 사례로서, 한국어 동사 ‘깎다’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다의성을 검토하고, ‘깎다’의 의항 중 그동안 다소 소홀하게 취급된 부류들을 살펴본 뒤, 각 의항들이 어떻게 다의망을 이루고 있는지 모형화해 볼 것이다.

II. ‘깎다’의 다의성 기술을 위하여:

기성 사전에서의 ‘깎다’의 처리

기성 사전에서 ‘깎다’의 다의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가 검토할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 우리말 큰사전(이하 ‘우리’),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이하 ‘고려’)이다. 우리의 검토에서는 북한어와 옛말은 제외하려 하므로, 아래의 목록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표준]

[1] 【…을 …에】

「1」바닥에 퍼 놓다.

「2」돈이나 물건 따위를 여기저기 빌려 주거나 팔려고 내놓다.

[2] 【…을】

「1」무엇을 밑에 두고 누르다.

「2」꼼짝 못하게 남을 억누르다.

「3」((주로 ‘목소리’와 결합하여))낮은 목소리로 엄숙하게 말하다.

[3] 【…을 …으로】

「1」어떤 생각이나 현상의 바탕이 되게 하다.

「2」눈을 아래로 내리뜨다.

[우리]

(1) 밑에 퍼 놓다.

(2) 밑에 두고 지나가거나 몽개다.

(3) 돈이나 곡식 따위를 여러 군데 빌려 주어 놓다.

[고려]

(1)

(ㄱ) (사람이 넓은 물체나 알갱이 상태의 것들을)바닥에 퍼거나 늘어놓다.

(ㄴ) (사람이 장소에 넓은 물체나 알갱이 상태의 것들을)바닥에 퍼거나 늘어놓다.

(ㄷ) (사람이 어떤 장소를 넓은 물체나 알갱이 상태의 것들로)거의 전부 덮거나 늘어놓다.

(2) (사람이 무엇을)다른 주된 것의 전제나 기본 바탕으로 제시하다.

(3) (사람이 무엇을)밑에 두고 누르다.

(4) (사람이 몸의 일부를)바닥 면에 대다.

(5) (사람이 눈을)아래로 내리뜨다.

(6)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여러 군데에 빌려주거나, 팔려고 내놓다.

(7) 〈비유적으로〉(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꼼짝 못하게 억누르다.

(8) (사람이 목소리를)가라앉혀서 낮고 굵게 내다.

(9) 〈속된 말로〉(사람이 어디에 군인이나 부하를)배치해 두다.

(10) 〈바둑에서〉(하수가 바둑알을)몇 점 미리 놓다.

세 사전의 의항 수를 비교하면, ‘우리’가 3개의 의항으로 제일 적은 수의 의항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항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고려’인데, 헤아리는 방법에 따라 의항의 정확한 수는 달라질 수 있다. 항목 (1) 아래에 (ㄱ), (ㄴ), (ㄷ)으로 구분된 하위 분류를 모두 별도의 의항으로 간주한다면 의항의 수는 12개가 되고, (ㄱ), (ㄴ), (ㄷ)을 하나의 의항으로 간주한다면 의항의 수는 10개가 된다. ‘표준’은 7개의 의항을 설정해 수로만 따졌을 때 ‘우리’와 ‘고려’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사전 항목의 기술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전마다 의항의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 각각의 사전이 서로 다른 이론적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즉 ‘우리’와 ‘표준’이 ‘고려’보다 적은 수의 의항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나 ‘표준’ 쪽은 다양한 용례들을 하나의 의항으로 포섭하는, 종합주의/단의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따르고 있고, ‘고려’ 쪽은 분석주의/다의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고려’의 (4)번이나 (10)번 의항에 해당하는 의미가 ‘우리’나 ‘표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론적 입장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용례의 존재를 간과한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갈다’의 경우에 한해서는 가장 다양한 의항을 설정한 사전, 이 경우에는 ‘고려’를 주로 참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항들을 분류하는 체계도 세 사전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표준’은 문형(논항구조)에 따라 의항을 분류하고 있다. 즉 ‘표준’은 의항의 논항구조가 ‘…을 …에’인가, ‘…을’인가, ‘…을 …으로’인가에 따라 대부류를 나눈 뒤 그 안에서 다시 세부 부류를 나누고 있다. ‘고려’는 이와 달리 (자동사/타동사를 구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논항구조를 의항의 분류에 반영하지 않으며, ‘갈다’의 경우 의항(1)에서만 하위 부류가 구분된다. 그리고 ‘우리’는 의항을 별도의 내적 구조 없이 열거하고 있다.

각 의항이 포괄하는 의미 범위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표를 그려 보기로 한다.

예문	우리	표준	고려
이부자리를 <u>깎다</u> .	(1)	(1-1)	(1 ㄱ)
마을 한가운데에 <u>자갈</u> 을 <u>깎다</u> .			(1 ㄴ)
거실 마루를 대리석으로 <u>깎다</u> .			(1 ㄷ)
미리 전제를 <u>깎다</u> .		(3-1)	(2)
상자를 <u>깎고</u> <u>얹다</u> .	(2)	(2-1)	(3)
배를 <u>깎고</u> <u>얹드</u> 리다.			(4)
눈을 <u>깎다</u> .		(3-2)	(5)
돈을 여기저기 <u>깎아</u> 놓다.	(3)	(1-2)	(6)
(비유적으로) 사람을 <u>깎고</u> 뭉개다.		(2-2)	(7)
목소리를 <u>깎다</u> .		(2-3)	(8)
서장이 경찰을 <u>깎다</u> .			(9)
(바둑에서) 두 점을 <u>깎다</u> .			(10)

이 표에 담긴 정보는 대략적인 것이다. 각 사전에서 제시한 의항들 중 서로 대응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같은 행에 위치시킨 것으로, 이 표만 가지고서는 정밀한 비교를 수행할 수 없다. 몇몇 뜻풀이는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 좀더 상세한 비교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몇몇 뜻풀이에 대한 상세한 비교를 수행하기로 한다.

먼저 ‘미리 전제를 깎다.’에 나타나는 ‘깎다’에 대해 살펴보자. 이 용법은 ‘표준’과 ‘고려’의 뜻풀이가 차이가 난다. ‘표준’에서는 ‘어떤 생각이나 현상의 바탕이 되게 하다.’(3-1)로 풀이하고 있고, ‘고려’에서는 ‘(사람이 무엇을)다른 주된 것의 전제나 기본 바탕으로 제시하다.’(2)로 풀이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고려’의 뜻풀이에는 ‘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고려’의 뜻풀이에는 전제나 기본 바탕을 까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고려’의 뜻풀이에는 전제나 기본 바탕을 누군가에게 명시적으로 알린다는(‘제시하다’)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고려’의 처리대로 ‘사람’이나 ‘제시하다’라는 의미 성분을 받아들여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 뜻풀이로 포섭하지 못하는 용례가 많아진다. 다음 예를 보자.

- (1) 가. 그것은 죽음을 그 바탕으로 깔고 있는 갖가지 형태의 고통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문열, ‘영웅시대’)
 나. 그 작품은 휴머니즘을 배경에 깔고 있다.

(1가)의 예문은 주어 명사구로 생각되는 요소가 ‘공포’이므로 사람이 아니고, 더군다나 공포가 죽음을 ‘제시한다’고는 이해할 수 없다. (1나)는 주어 명사구가 ‘작품’이어서 역시 사람이 아니다. 단, (1가)의 예문은 은유로 생각할 수 있고, (1나)에서 ‘작품’이 주어로 나타나는 것은 작가-작품 관계의 환유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고려’의 뜻풀이를 변호할 여지는 있다.

다음으로 ‘상자를 깔고 앉다.’에 나타나는 ‘깎다’를 살펴보자. 이 ‘깎다’는 ‘우리’의 뜻풀이와 나머지 두 사전의 뜻풀이가 차이가 난다. ‘우리’에서는 ‘두고 지나가거나 뭉개다.’(2)라고 뜻풀이하고 있는 반면 ‘표준’에서는 ‘무엇을 밑에 두고 누르다.’(2-1)라고 뜻풀이하고, ‘고려’에서는 ‘(사람이 무엇을)밑에 두고 누르다.’(3)라고 뜻풀이하였다. 비교해 보면, ‘우리’의 뜻풀이는 주어가 목적어 위를 지나가는 ‘이동’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표준’, ‘고려’의 뜻풀이에는 ‘이동’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표준’, ‘고려’의 뜻풀이는 문면 그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예문을 포섭하지 못한다.

- (2) 가. 차가 사람을 깔았다.

그러나 이 점을 근거로 ‘우리’에는 기술되어 있는 의항이 ‘표준’과 ‘고려’에서 누락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2가)와 같은 용례가 현대어에서 그리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뜻풀이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면, (2가)와 같은 용례는 ‘표준’과 ‘고려’의 편찬자들이 (표준1-1), (고려1)의 의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을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돈을 여기저기 깔아 놓다.’에 나타나는 ‘깎다’를 살펴보자. 이 ‘깎다’는 ‘우리’의 뜻풀이와 나머지 두 사전의 뜻풀이가 차이가 난다. ‘우리’에서는 ‘돈이나 곡식 따위를 여러 군데 빌려 주어 놓다.’(3)라고 풀이한 반면, ‘표준’에서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여기저기 빌려 주거나 팔려고 내놓다.’(1-2)로

풀이했고, ‘고려’에서는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여러 군데에 빌려주거나, 팔려고 내놓다.’ (6)로 풀이하였다. 즉 ‘표준’과 ‘고려’는 돈을 여기저기에 빌려주어 놓는 것과 물건을 팔려고 내놓는 것을 한 개의 의향으로 처리한 것이다.¹⁾ 그러나 다음 두 용례가 한 의향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직관에 꽤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3) 가. 물건을 좌판에 깔고 팔다. (표준1-2의 예문)

나. 돈을 여기저기 깔아 놓다.²⁾ (고려6의 예문)

우리의 직관에 (3가)는 실제 물체를 좌판에 올려두는 물리적 행위이고, (3나)는 대부업이라는 추상적 행위를 물리적인 비유로 표현한 것인데, 이 둘을 한 의향으로 처리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 두 의향 사이에는 상업/금융 행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접점(의미교semantic bridge)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의미교가 양자를 한 의향으로 묶을 정도로 강력한 성질을 가졌는지는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 외에도, ‘깔다’의 용법 가운데에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도 있고, 사전에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용례들과 함께 한 의향으로 뭉뚱그려 넣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용법도 있다. 그 예들을 아래에 들기로 한다.

(4) 가. ‘전선을 깔다’, ‘상수도를 깔다’

나. ‘프로그램을 깔다’ /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깔다’

다. 신호를 송출하다. ‘칼라 바를 깔다’, ‘자막을 깔다’

라. ‘음악을 깔다’, ‘배경음악을 깔고 그 위에 나레이션을 깔다’

위 예들 가운데 (4라)의 ‘음악을 깔다’는 ‘고려’에서 (고려2), 즉 ‘(사람이 무엇) 다른 주된 것의 전제나 기본 바탕으로 제시하다’의 용례로 분류된 것이다. 그러나 ‘전제를 깔다’와 ‘음악을 깔다’는 동일한 의향으로 처리하기에는 의미의 차이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1) 한편 ‘우리’에는 ‘팔려고 내놓다’라는 뜻풀이 자체가 없다.

2) 돈을 여러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는 의미로.

이제 본질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깎다’의 다의성은 사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의항의 수를 각각 ‘우리’는 3개, ‘표준’은 7개, ‘고려’는 10개로 상정한다. ‘깎다’의 경우에 한하여 말하면, 몇몇 사전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의항을 설정하고 있는 이유가 특정한 이론적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집필 과정에서 단순히 용례의 존재를 간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장 다양한 의항을 설정한 사전, 이 경우에는 ‘고려’를 따르는 것이 좋아 보인다.

그러나 ‘고려’도 완벽하지는 않다. ‘고려’의 의항 설정과 뜻풀이 안에는 ‘깎다’의 다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들을 다음에 든다.

- (1) ‘전제를 깎다.’에 나타나는 ‘깎다’와 관련된 의항 확정 문제. 특히 ‘사람이’, ‘제시하다’라는 의미성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 (2) ‘상자를 깎고 앓다.’, ‘차가 사람을 깎았다.’에 나타나는 ‘깎다’와 관련된 의항 확정 문제. 특히 ‘이동’의 의미 성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 (3) ‘돈을 여기저기 깎아 놓다.’와 ‘좌판에 물건을 깎고 팔다.’에 나타나는 ‘깎다’와 관련된 의항 확정 문제.
- (4) ‘전선을 깎다’, ‘프로그램을 깎다’, ‘자막을 깎다’, ‘음악을 깎다’에 나타나는 ‘깎다’와 관련된 의항 확정 문제.

이 중에는 본고의 논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문제도 있고, 본고의 논의 범위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일단 염두에 두고, 절을 달리하여 ‘깎다’의 의항 목록을 세워 보기로 한다.

III. 다의성 관별의 기준과 ‘깎다’의 의항들

우리는 앞 절에서 동사 ‘깎다’에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으며, 기성 사전에서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의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제 ‘깎다’의 다양한 의항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리고 그리고 그 망(network)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다의어의 의항들을 발견하고 그 망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채택하고자 하는 접근법은 Tyler and Evans (2001)에서 사용된 방법에 제일 가깝다. Tyler and Evans(2001)에서는 어휘 항목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에 먼저 가장 원형적이고 중심적인 ‘주요 의향’(primary sense)을 상정하고, 주요 의향에서 개별 구성요소가 어떤 변이를 일으키는가를 관찰하여 변이의 정도에 따라 여러 의향들의 친소관계를 설정하였다. 우리의 연구도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을 따라, ‘갈다’의 주요 의향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변이를 통해 도출되는 다른 의향들을 확인한 뒤, 그 의향들이 이루고 있는 다의망을 친소 관계에 따라 구성할 것이다.

1. ‘갈다’의 주요 의향(primary sense)

우리는 ‘갈다’의 주요 의향을 ‘넓고 납작한 물체를 바닥 또는 평평한 표면에 펼쳐 놓다.’로 보고자 한다. 이 의향은 대부분의 사전에서 1번 뜻풀이로 처리한 것에 가깝다. 이것을 주요 의향으로 설정하는 근거를 이제부터 밝히기로 한다. 우리는 주요 의향 설정의 기준을 빈도, 물리성/공간성, 은유적 중심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 세 가지를 고려하였을 때 ‘넓고 납작한 물체를 바닥 또는 평평한 표면에 펼쳐 놓다.’라는 의미가 주요 의향으로 가장 적절함을 보이도록 하겠다.

1) 빈도: 대개의 경우, 한 단어의 여러 의향 중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의향이 곧 그 단어의 주요 의향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말뭉치를 참고했을 때 ‘갈다’의 용법 중 ‘넓고 납작한 물체를 바닥 또는 평평한 표면에 펼쳐 놓다.’는 높은 빈도를 가진 것으로 관정된다. 또 빈도를 의향 배열의 기준으로 채택한 ‘고려’에서도 이 의향을 1번 뜻풀이로 배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빈도 기준에 의하면 이 의향이 주요 의향의 적절한 후보이다.

2) 구체성/공간성: 언어 단위의 의미는 구체적이고 공간적인 의미가 가장 일차적이며, 그 외의 의미들은 일차적인 의미로부터 은유나 환유를 통해 도출된다는 처소주의 가설(localist hypothesis)에 따라, 우리도 구체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를 갖는 의향을 주요 의향의 강력한 후보로 본다. ‘갈다’의 여러 의향 가운데에서는 ‘넓고 납작한 물체를 바닥 또는 평평한 표면에 펼쳐 놓다.’

가 가장 구체적이고 공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므로 이 기준에 의해서도 이 의항이 주요 의항의 가장 적절한 후보이다.

3) 은유적 중심: 주요 의항은 은유적 의미 확장의 출발점이 된다. 다시 말해 주요 의항으로부터 일정한 의미 변이를 거쳐 새로운 의항이 파생된다. 그러므로 여러 의항들이 공유하는 의미 성분이 시작되는 지점을 주요 의항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주요 의항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항들을 귀납적으로 확인한 뒤에, 그 의항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의항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논의 진행의 순서를 약간 바꾸어 우리가 생각하는 ‘깔다’의 주요 의항을 먼저 제시하고(3.1.), 그 뒤에 주변 의항이 도출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3.2.) 의항 설정의 정당성을 보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우리는 ‘깔다’의 주요 의항을 다음과 같이 상정한다.

‘깔다’의 주요 의항: 넓고 납작한 물체를 바닥 또는 평평한 표면에 펼쳐 놓다.

‘깔다’의 주요 의항을 이렇게 상정하고 보면, 이 주요 의항이 묘사하는 사태에는 적어도 세 가지 참여자 성분(논항)이 등장함을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은 행위 주체(A), 넓고 납작한 물체(P), 바닥 또는 평평한 표면(L)이다. ‘깔다’가 구성하는 구문에서 일반적으로 A는 주격으로, P는 대격으로 L은 처격으로 나타난다. 즉 ‘깔다’가 구성하는 구문은 다음과 같은 격들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깔다’의 기본 구문: A가 P를 L에 깔다

위와 같이 상정한 주요 의항의 뜻풀이와 기본 구문에 추가하여, 우리는 주요 의항의 의미 성분에 ‘변이 잠재 요소’라는 개념을 추가로 도입하고자 한다. 변이 잠재 요소란, ‘주요 의항의 뜻풀이에 명시적, 필수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지만, 높은 빈도로 활성화되어 은유적 의미 확장(변이)의 토대가 되는 맥락

적 내포(contextual connotations)’를 말한다.

왜 주요 의항의 의미 성분에 이런 변이 잠재 요소를 상정해야 하는가? 변이 잠재 요소를 상정하면 다의어의 은유적 의미 확장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이 잠재 요소 개념의 유용성을 설명하기 위해 ‘잡다’ 동사의 예를 들어보겠다. ‘잡다’, ‘집다’, ‘쥐다’, ‘들다’ 등의 동사는 순전히 구체적/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거의 동일한 사태를 지시한다. 그런데 왜 이 중 유독 ‘잡다’만 ‘자세를 잡다’, ‘논문 개요를 잡다’ 등의 의항으로 용법이 확장되는 것일까? 이는 ‘잡다’의 변이 잠재 요소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여 설명해볼 수 있다.

‘잡다’의 변이 잠재 요소: 사람이 어떤 물체를 잡는 것은, 그것이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잡다’의 변이 잠재 요소를 상정하면 ‘잡다’의 은유적 의미 확장 양상이 왜 ‘집다’, ‘쥐다’, ‘들다’와 다른지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잡다’는 ‘고정시킨다’는 변이 잠재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맥락상) 적절한 상태로 고정시킨다’는 의미의 ‘자세를 잡다’나 ‘앞으로 집필할 논문의 방향을 고정해 둔다’는 의미의 ‘논문 개요를 잡다’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변이 잠재 요소는, 주요 의항의 모든 용례에 필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높은 빈도로 활성화되어 다의적 의미 변이의 토대가 되므로, 단어의 다의성을 해명할 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우리는 ‘깎다’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변이 잠재 요소를 상정하기로 한다.

‘깎다’의 변이 잠재 요소1: 사람이 어떤 물체를 깎는 것은 그 위에 올라가거나 무언가를 올려놓기 위해서이다. (정적 의미)

‘깎다’의 변이 잠재 요소2: 사람이 어떤 물체를 깎는 것은 그 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이다. (동적 의미 → 준비, 예비의 의미)

‘깎다’의 주요 의항과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목적어인 ‘돛자리를 깎다’, ‘담요를 깎다’, ‘장판을 깎다’ 등의 쓰임을 떠올려 보면, 위에서 제시한 문맥적 내포가, 모든 용례에 필수적이지는 않더라도, 높은 빈도로 주요 의항의 쓰임

과 결부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강조하였다시피 이 변이 잠재 요소들은 단어의 다의성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 변이 잠재 요소들이 ‘깎다’의 다의성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뒤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이다.

2. ‘깎다’의 다의성

이제부터는 주요 의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깎다’의 여러 의항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다의어의 의항을 확인할 때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가 되는 부분은 단어가 문장 안에서 여러 다른 단어들과 어울려 쓰일 때 그 쓰임들이 ‘한 의항에 포섭되는 이런저런 용법’인가 ‘구별되는 별도의 의항’인가를 가리는 것일 것이다. 그동안 이 수수께끼를 푸는 해법이 여러가지로 제시되었다. 가령 ‘독립적인 진리조건을 갖는가?’, ‘독립적인 어휘관계를 갖는가?’, ‘액어법(zeugma)을 적용해 보았을 때 어색한 문장이 되는가?’ 등이 흔히 사용되어 온 기준들이다. 다행히도 ‘깎다’의 경우에는 의항 분별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용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의 논의에서도 다의어의 의항 분별 기준들은 필요할 때만 언급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깎다’ 의항들의 성격과 주요 의항에서의 변이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주요 의항: 넓고 납작한 물체를 바닥 또는 평평한 표면에 펼쳐 놓다.

이 의항을 ‘깎다’의 주요 의항으로 설정하는 동기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원형적인 ‘깎다’ 행위에는 세 가지 참여자가 있는데, 행위 주체(A)는 전형적으로 인간으로 나타나고, 피행위자(P)는 넓고 납작한 물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처소(L)는 바닥 또는 평평한 표면이다. 다른 의항들은 이 참여자 요소에 변이를 일으키며 주요 의항으로부터 새로운 의항으로 갈라져 나온다.

2) 여러 물체를 넓은 영역에 늘어놓다.

예) 볼링핀을 깎다.

이 의항에서는 본래 주요 의항에서 ‘넓고 납작한 물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P가 ‘작고 동질적인 여러 개의 알갱이’로 속성이 변이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의미 변이는 다의어에서 흔히 발견된다. 예를 들어 동사 ‘두르다’는 기본적으로 P가 길거나 넓은 유연한 물체이지만, 이것이 작고 동질적인 여러 개의 물체라는 변이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다. (보석을 두르다, 장신구를 두르다) 이렇게 작은 알갱이 여럿을 큰 하나의 개체처럼 취급하는 의미 변이 현상은 다른 언어에서도 널리 발견되는 체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영어 전치사 over는 명확한 경계를 가진 개체가 ‘넘어서 이동하는’ 동작을 묘사할 때도 쓰이지만, 작은 알갱이들이 쌓이다가 일정한 범위를 지나쳐 ‘넘치는’ 사태를 묘사할 때도 쓰일 수 있다.

3) 운송/이동의 경로가 되는 인공물을 건설하다.

예) 도로를 깔다. 철도를 깔다. 전선을 깔다. 상수도를 깔다.

이 의항에서는 P가 ‘넓고 납작한 물체’에서 ‘좁고 길쭉한 물체’로 속성이 변이하였다. 그러나 P의 물리적 속성이 변이한 것은 이 의항의 의미 파악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이 의항에서 ‘행위의 결과물’이 ‘다른 물체 혹은 물질의 운송/이동의 경로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변이 잠재 요소2(동적 의미)의 활성화에 의한 의미 확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물체를 까는 것은 그 위에서 활동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변이 잠재 요소가, 건설/토목의 문맥에서 활성화되어 인간이 이용하기 위한 기간 시설을 설치하는 활동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4) 신체 일부분을 바닥에 대다.

예) 배를 깔고 엎드린다.

이 의항에서는 주요 의항의 원형적 의미가 대체로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다만 주요 의항에서는 A와 P가 분리된 개체인데, 여기서는 A와 P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다르다. 이 의항에서는 신체의 어떤 부분이나 ‘깔다’와 호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P의 원형적 속성인 ‘넓고 납작한 물체’와 얼마간 유사성을 가진 부분과 잘 호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낮은 곳에 위치하게 하다.

예) 눈을(시선을) 깔다. 목소리를 깔다.

이 의항은 다른 의항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의미 변이의 과정이 다소 이질

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의항들은 참여자 논항의 속성이 원형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변이 잠재 요소가 활성화되며 별도의 의항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의항은 오히려 변이 잠재 요소의 속성이 약화되어 있다. 즉, ‘깎린’ 시선이나 목소리 ‘위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난다는 은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 의항에서는 P와 L의 물리적 외형이 약화되어 있다. 즉 P는 구체적인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며 L도 평평한 바닥이 아니다.

그러므로 ‘눈을 깎다’, ‘시선을 깎다’는 지금으로서는 ‘깎다’의 의항 중에서는 가장 동떨어진 성격을 가진 의항으로 생각된다. 이 의항에는 변이 잠재 요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추상물인 P를 낮은 곳에 위치하게 한다는 의미만을 가진다.

6) 바닥에 놓인 물체 위에 올라가다.

예) 바위를 깔고 앉다. 발로 흙덩이를 깔아 뭉개다.

이 의항은 (넓은 의미로) 상적인(aspectual) 측면에서 2)~5)의 의미 변이와 차이가 있다. 2)~5)의 의미 변이들은, 각각 성질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어느 것이나 ‘P를 L에 펼치는 동작’ 행위로부터 은유된 것이다. 그런데 이 의항은 P를 L에 펼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펼쳐진 P 위로 올라가는 행위, 혹은 그 위에서 중력의 힘으로 누르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의항이 파생되는 것은 변이 잠재 요소1의 활성화의 결과로 생각된다. 주요 의항 ‘깎다’는 물체를 바닥에 펼친다는 의미를 갖는데, 변이 잠재 요소1의 작용으로 바닥에 펼쳐진 물체에 대하여 하는 행위(그 위에 올라감)를 가리키는 의항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행위 A] → [행위 A의 후속활동 B]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이것은 환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돈이나 물건을 여러 곳에 빌려주다.

예) 돈을 깔아 놓다.

이 의항에서는 L의 공간적인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 여기서 ‘돈’은 일정한 공간적 범위나 시야를 점하는 것이 아니다. 주목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만 ‘깎다’를 사용하고, 돈을 나누어준다거나 소비가 심하다는 뜻으로는 ‘깎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까는’ 행위가 끝나고 나도 P가

A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잠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까는’ 행위는 후속하는 행위의 준비 과정이라는 변이 잠재 요소의 의미가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8) 꿈쩍 못하게 억누른다.

예) 사람을 깔다.

이 의항에서는 ‘깔다’의 공간적 의미가 추상화되어 더 이상 구체적 공간적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이 의항은 6)번 의항인 ‘올라감’ 의항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위는 긍정적인 것, 아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은유된다고 할 때, 자신의 무게로 다른 물체를 누르는 행위를 가리키는 ‘깔다’는 타인을 부정적인 감정 상태/사회적 상태에 놓이도록 강제한다는 의미로 추상화될 수 있다.

9) 인력을 넓은 범위에 배치하다.

예) 경찰을 깔다.

이 의항은 일차적으로 ‘알갱이’ 의항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속된 표현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깔다’ 구문에서 사람이 P로 나타나는 용법이 전형적이기 않기 때문에, 사람을 마치 사물처럼 간주한 표현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의항에서는 L의 속성도 희석되어 평평한 표면이 아닌 경우에도 쓰일 수 있게 된다. (예: ‘건물에 경찰이 깔렸다.’) ‘깔다’는 인력을 자유롭게 해산시킨 경우에는 쓰지 않고,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A의 영향력이 개별 P에게 발휘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이러한 제약은 ‘까는’ 행위가 후속 활동의 준비 과정이라는 변이 잠재 요소2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0) 어떤 개념이나 명제를 생각이나 논의의 기본 바탕으로 삼다.

예) 전제를 깔다.

이 의항에서는 ‘깔다’의 공간적 의미가 추상화되어 더 이상 구체적 공간적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변이 잠재 요소2가 활성화되어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그 준비로서 무언가를 마련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고 하여 ‘준비’의 의미를 가지는 모든 활동이 ‘깔다’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고, 활동의 시작

부터 끝까지 그 속성이나 영향력이 유지되는 대상에 한하여 ‘깎다’를 사용한다. 이러한 특성은 ‘소프트웨어’ 의항이나 ‘배경음악’ 의항에도 적용된다. 이들도 활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속성과 영향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다.

예) 워드프로세서를 깎다.

이 의항에서는 ‘깎다’의 공간적 의미가 추상화되어 더 이상 구체적 공간적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변이 잠재 요소2가 활성화되어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그 준비로서 무언가를 마련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의항은 ‘건설’ 의항으로부터 파생된 것일 수 있다. 가령 ‘상수도’와 ‘물’의 관계는 ‘프로그램의 설치’와 ‘프로그램의 사용’의 관계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배경 음악을 내보낸다.

이 의항에서는 ‘깎다’의 공간적 의미가 추상화되어 더 이상 구체적 공간적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변이 잠재 요소2가 활성화되어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그 준비로서 무언가를 마련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음악을 깎다’는 음악 그 자체가 주(主)가 되는 활동인 공연이나 연주에는 잘 쓰이지 않고, 방송이나 영화의 배경 음악을 내보낸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3) 소매 상업의 문맥에서: 좌판 위에 판매하기 위한 물건을 깎다.

이 의항은 물리적 속성 면에서는 2)번의 ‘알갱이’ 의항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판매자는 상품을 진열하고 구매자는 진열된 상품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고른다’라는 상행위의 문맥이 결부되어, 상인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내보인다는 의미를 획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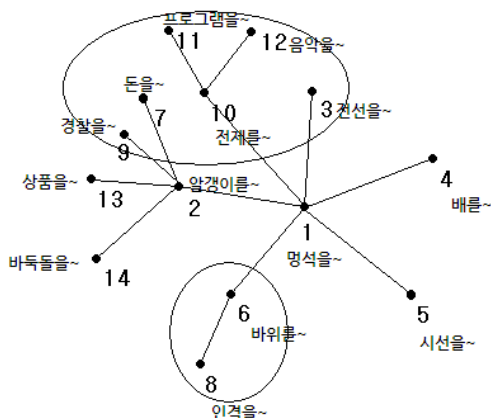
14) 바둑의 문맥에서: 돌을 두 점 깎다.

이 의항은 물리적 속성 면에서는 ‘알갱이’ 의항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실력 차이가 큰 경우 하수에게 유리한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 돌을 몇 점 판 위에 얹은 채로 시작한다’라는 바둑 경기의 문맥이 결부되어, 하수에게 경기 시작 전에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특수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상으로 ‘깎다’가 가지는 14개의 의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깎다’의 주요 의향을 ‘넓고 납작한 물체를 바닥 또는 평평한 표면에 펼쳐 놓다.’로 상정한 뒤, 그로부터 파생되는 주변적인 의향들에 무엇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주변적인 의향들의 파생 관계는 주요 의향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선(link)들로 연결되어 있는 점(node)들의 모임으로 시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 의향들이 서로 어떤 친소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군집화되어 있는지를 시각화하여 살펴기로 한다.

IV. ‘깎다’의 다의망

앞 절에서 파악한 사항을 토대로 ‘깎다’의 여러 의향들이 이루고 있는 다의성의 망 구조를 다음과 같이 그려 보기로 한다.



의향 3, 7, 9, 10, 11, 12를 감싸고 있는 원은 이 의향들에서 변이 잠재 요소2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른 의향들은 문맥에 따라 변이 잠재 요소2가 전면에 부각될 수도 있고 숨겨질 수도 있지만, 의향 3, 7, 9, 10, 11, 12는 변이 잠재 요소2가 전면에서 부각되어 새로운 의향으로 갈라져 나온 것이다. 즉 이들은 모두 후행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바탕을 마련해 둔다

는 의미를 갖고, P는 후행하는 사태가 완결될 때까지 그 속성이 유지된다.

의항 6, 8을 감싸고 있는 원은 이 의항들에서 변이 잠재 요소1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6에서는 ‘바닥에 펼치다’라는 의미가 사라지거나 약화되고 그 대신 ‘이미 바닥에 놓인 대상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가한다’는 뜻으로 의미가 변화되었다. 8에서는 6의 의미가 한층 추상화되어 사람의 명이나 감정을 비유적으로 ‘내리누른다’는 의미가 획득되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의항들을 공통점에 따라 묶어 기술하는 것은 Tyler and Evans (2001)에서 설정한 군집(cluster)과도 그 발상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묶음’은 Tyler and Evans (2001)의 군집과는 다르다. Tyler and Evans (2001)의 망 모형에서 군집은 하나의 점(node)으로 시각화되었지만 우리의 모형에서 묶음은 2차원적 영역으로 시각화된다. 이렇게 묶음을 2차원적 영역으로 시각화하면, 서로 다른 경로로 파생된 의항들이 하나의 묶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깎다’ 다의망 그림에서 의항 11, 12는 의항 10을 거쳐서 파생되고, 의항 7, 9는 의항 2를 거쳐서 파생된다. 이들은 파생의 원천은 다르지만 의항 1, 2에 잠재해 있던 변이 잠재 요소 2가 활성화되어 갈라진 의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그리하여 하나의 묶음 안에 묶일 수 있다. 그러나 Tyler and Evans (2001)의 모형에서는 군집에 속하는 모든 의항이 동일한 파생의 원천을 공유해야 하며, 또한 그 원천에서 파생된 모든 의항은 한 군집 안에 속해야 한다. 우리의 ‘묶음’은 이러한 제약을 전제하지 않는다. 의항들이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파생되었더라도 유의미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V. 결론

우리는 다의어의 의항들이 언어 화자의 심성공간 속에서 그물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전제하에, 한국어 동사 ‘깎다’를 대상으로 그 의항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채택한 이론 모형은 Tyler and Evans(2001)에서 사용한 다의망 모형이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요 의항의 뜻풀이에 명시적, 필수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지만, 높은 빈도로 활성화되어 은유적 의미 확장(변이)의 토대가 되는 맥락적

내포인 ‘변이 잠재 요소’ 개념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다의어의 의미 확장 현상을 살피는 데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 가지의 변이 잠재 요소를 설정하여 ‘갈다’의 다의 현상을 설명하였다.

참고문헌

사전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연구논저

- Brugman, C. and G. Lakoff (1988), “Cognitive topology and lexical networks”,
S. L. Small, G. W. Cottrell and M. K. Tanenhaus (eds.), Lexical
Ambiguity Resolution: Perspectives from Psycholinguistics, Neuropsych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Morgan Kaufmann, pp. 477-508.
- Croft, W. (1998), “Linguistic evidence and mental representations”, Cognitive
Linguistics 9-2, pp. 151-173.
- Cruse, Alan. (2004) Meaning in Lanugage: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Pragmatic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 Klein, D. E. and G. L. Murphy (2001), “The Representation of Polysemous
Word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5, pp. 259-282.
- Tyler, Andrea. and Vyvyan Evans (2001) “Reconsidering prepositional polysemy
networks: the case of over,” Language 77, pp.724-765.